■ 2000년 불서흐름 ■

책으로 닦는 깨달음의 길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불서 불교입문·선방일기·만행 順

금강삼매경론·불교음악사 눈길 작은경전·禪관련서도 호평

떠들썩했던 시작이 민망할 정도로 밀레니엄의 첫해가 조용히 저물고 있다. 역시 중요한 건 10년 혹은 천년 단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임을 확인하게 한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일상의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으리라.

올 한해 불자들은 무슨 책을 즐겨 보았을까.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좋은 책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 불교 대중의 지적 풍향과 수준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불서시장을 이끈 베스트 불서를 짚어본다.

올 한해 불교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던 책은 없었다. 하지만 스님들이 펴낸 책이 장기간 인기 상한의 위치를 누렸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한해가 불황 속에서 시작된 만큼 많은 독자들이 어수선한 마음의 한 자락을 '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 해법을 찾거나,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불자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선방일기〉(여시아문)다. 70년대 초반 겨울,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한 선객들의 일과를 담은 이 책은, 경제 한파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갈망하는 불자들에게 소욕지족의 삶과 그 가치를 가슴 깊이 각인시켜 '재기의 의지를 담금질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 책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즐겨 읽을 정도로 일반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 라디오 방송사는 부처님 오신날 특집 드라마로 이 책을 원작으로 삼기도 했다.

2000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신 또 한 권의 책은 현각 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와 원성 스님의 〈풍경〉(이레)을 꼽을 수 있다.

불자들은 왜 이 책들을 선택했을까? 불자들은 사변적 언어와 딱딱한 표현으로 일관한 무거운 책보다는 서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수행의 현장에 있는 스님에 기대어 경쟁과 속도의 시대를 버티며, 참나의 존재를 찾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두막 편지〉(법정 지음, 이레),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일타스님 지음, 불교시대사) 등 스님이 펴낸 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

그러면 불자들은 '쉽게 읽히는 책'만 선택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불자들은 신행과 수행의 사표로 불서를 선택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편집이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불서 전문서점 여시아문 집계)으로 선정된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이 그러한 현상의 좋은 예다. 신행과 수행의 모든 것은 상세하게 요약한 이 책의 주 독자층은 불교교양대학생들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이 책을 '신행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올해 불교출판 흐름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생활 속의 기도법〉, 〈불교교리〉,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부처님 말씀〉 등의 꾸준한 반향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문이당) 등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과 민족사의 작은 경전 시리즈 등 점차 작아지는 책과 선 관련 서적들이 꾸준하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2000년 불교출판계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글은 시대를 뛰어넘는다. 잊혀졌다가도 다시 떠오르고 세월이 가도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은정희(서울교대) 교수의 '원효 연구 35년'을 담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일지사), 임기중(동국대) 교수가 순수불교가사 원전 108편을 모아 주석한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무산 스님의 다담선 뿌리 찾기 20년 산물인 〈한국역대고승의 다시〉(명상)를 비롯 박범훈 교수의 〈한국불교음악사연구〉(장경각), 〈한국사찰의 주련과 편액〉(대한불교진흥원) 등의 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올 한해의 불서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딱딱한 책보다는 깊이와 재미 그리고 문학적 향취가 묻어 있는 '내 마음의 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불교출판계는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독자들 모두는 불서출판의 위기론만 들먹일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든 책과 가까이 하는 생활 문화를 일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연말연시에 불서를 읽기 위해 불교전문서점을 찾은 불자들.

◇2000 베스트불서 2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입문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사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 림
6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7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8	부처님 말씀	성 열	현암사
9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풍경	원 성	이 레
11	법구경(작은경전)	지 현	민족사
12	불교교리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사
13	부처님께 재물 털면	스티븐 미첼	여시아문
14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1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 시대사
1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당
17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18	방편개시	허 운	여시아문
19	영원한 자유	성 철	장경각
20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조사선 원류 찾는 중국 선기행

지묵스님 지음 달마와 혜능

"아무 것도 아닌 선(禪), 그것을 위하여 떠났다." 지묵 스님이 〈달마와 혜능〉(우리)을 쓰게 된 이유다. 이 책이 출간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라 할 정도로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출가 수행자에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었다. 일의 전말은 이렇다. 글쓴이가 모 방송사의 '선(禪)' 관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현지 촬영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아닌 선'이란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은 부처에 대한 반역이다." "선이요, 밥 먹는 이것이 선 아닙니까" "맞아요, 선서를 읽다보면 깨달음의 세계에 든 기분이 들더군요." "선문답이 어렵다고 하지만 별것 아니더군요" 등 선에 대한 편협된 이야기가 글쓴이를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지묵 스님은 탁자에 놓은 물컵을 들고 말문을 열었다. "이것을, 물 컵이라고 하지 말고 물 컵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한 마디 하십시오." 순간 한사람씩 자리를 털고 나가 버렸다.

사실 위와 같은 분위기의 '구두선(口頭禪)'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스님은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선의 원류를 찾아 나선 것이다. 책의 내용은 중국 선종 사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대산 문수성지, 구화산 지장성지를 비롯 달마·혜가·임제·허운 스님 등 선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성도이후 7일간 행적 영화보듯 생생

재연스님 옮김 싯다르타의 길

세계적인 불교학자 데이비드 깔루빠나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싯다르타의 길〉(재연 스님 옮김, 숨)이 우리말로 나왔다.

그 동안 출간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가 출생과 깨달음, 그리고 전법 위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부처님의 유년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부처님 열반이후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깨달음 이후 7일 동안의 행적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초자료는 빠알리 경전, 때문에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다소 낯설지만 이것이 이 책을 신선하게 읽히게 한다. 40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이 책의 이야기들은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책의 말미에 수록한 각 이야기들의 출처는 연구자료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무엇보다 이 책의 백미는 대화속에 녹아 있는 인도사상이다. 유년 시절의 친구 까삘라를 통해 상캬 학파의 사상을 전하고 있으며, 웃달라까와 야즈냐발캬는 정통 인도사상인 우파니샤드 사상을 알려준다. 게다가 핵심주제에 대한 논의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이끌어감으로써 인도사상과 불교사상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인간·자연·경제 3요소 조화 강조

상생의 불교경영학

"요즘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에게 빈곤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지구는 망치더라도 인간을 살리고, 인간은 망치더라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웃기는 일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현대의 경제는 인간이나 자연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보다 인간을, 인간보다 자연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눈앞의 이익에 머뭇거리며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자연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 자연, 경제의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을까. 신간 〈상생의 불교 경영학〉(이은래 옮김, 이지북)은 그 묘안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 글쓴이는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이노우에 신이치 교수.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옷만 입게 한 삼의(三衣)제도의 한 예만 보더라도 시대를 앞서간 '부처님의 경영학'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부터 비롯된 사상 체계가 불교이며, 그것과 경제가 하나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글쓴이는 '왜 불교경제학인가'를 시작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불교사상', '모든 것을 되살려 내는 불교경제학'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독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경제학이 바로 불교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고차원 의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 저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로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